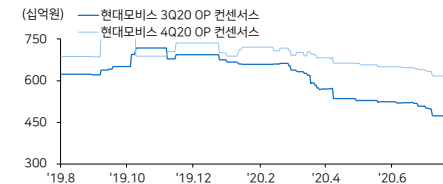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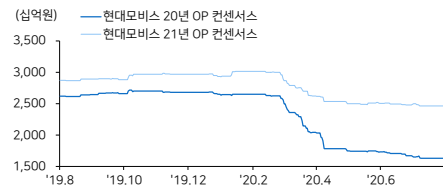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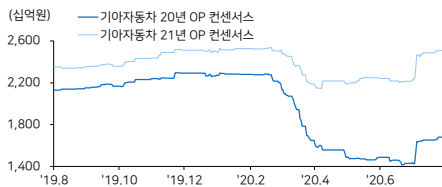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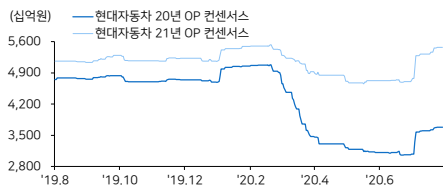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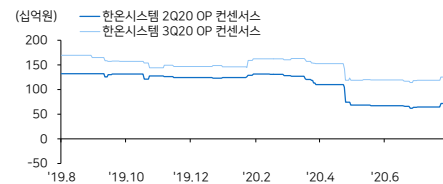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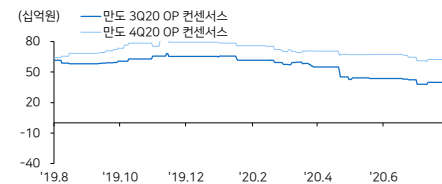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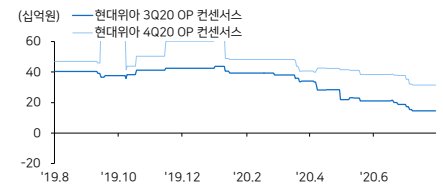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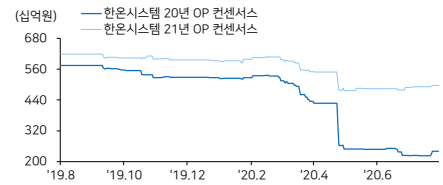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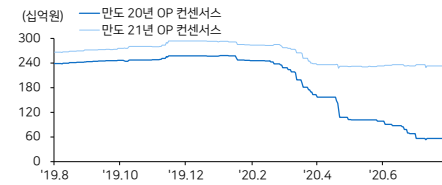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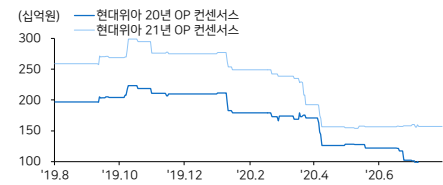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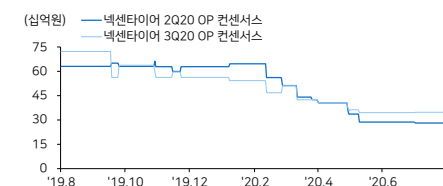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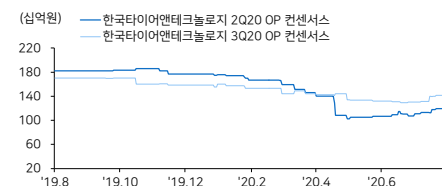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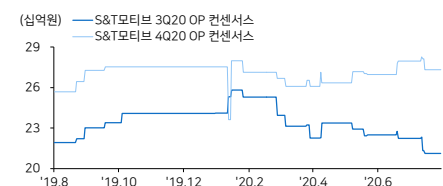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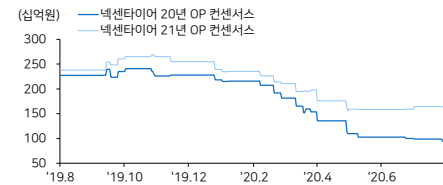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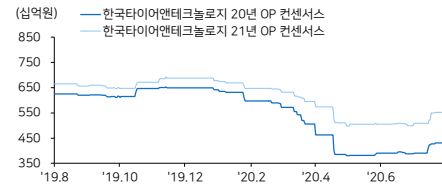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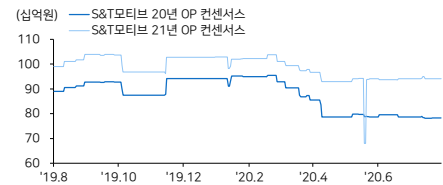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현대차, 러시아 GM공장 인수 '9월 완료'...코나 생산 유력 (더그루)

현대자동차의 러시아 GM공장 인수작업이 계약서에 서명만 남았을, 러시아 연방반독점청(FAS) 승인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다. 계약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개보수 작업을 위한 준비에 착수, 계약은 다음달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https://bit.ly/3gyg3R2>

중타이어 수입 허가받았다...현대차 등 인도 생산 '이상무' (아시아타임스)

현대차 등 인도 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인도와 중국 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타이어를 수입할 수 없어 자동차 생산이 멈출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벗어났다. <https://bit.ly/3gygT08>

현대차·기아차, '전기 1톤트럭' 판매 공돌이는 이유 (이코노믹리뷰)

현대차, 기아차가 1톤급 상용 전기 트럭으로 독보적인 시장 입지를 구축, 1톤급 전기트럭은 자연보호라는 거시적 목표를 달성할 뿐 아니라 국내 친환경성 증진에 하는 온실가스 마일리지를 확보하는데도 일조중.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409727>

자동차 판매업계, 여름철 막바지 프로모션 한창 (한국일보)

자동차 판매업계가 여름철 막바지 프로모션으로 고객유치에 적극 나섬. 자동차 판매업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올 봄 자동차 판매가 급감했으나 7월부터 반등을 시작, 9월 노동절 연휴를 전후해 예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기대 중. <https://bit.ly/32y2ufb>

기아차, 유럽서 '신형 쏘렌토 PHEV'제원 공개.韓 이르면 연말 출시 예정 (M오토데일리)

기아차 유럽법인이 신형 쏘렌토 PHEV 모델의 제원을 공개. 기아차는 신형 쏘렌토 PHEV를 오는 '21년 초 유럽시장에 판매할 예정이며, 국내는 이르면 올 하반기 출시될 2.5기솔린 터보와 함께 순차적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https://bit.ly/32AXpmo>

현대·기아차 인도서 '포스트 코로나' 전략 통했다 (헤럴드경제)

현대·기아차가 온라인 중심의 '포스트 코로나'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두터운 회복세를 보임. 이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속에서 비대면 판매부터 모빌리티 멤버십까지 다양한 맞춤형 플랫폼을 권역별로 확대 적용 <https://bit.ly/32vVdWd>

기아차 소하리공장서 코로나 확진...접촉 직원 3명 (서울경제)

기아차 소하리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해당 직원은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던 아내가 지난 25일 검사를 받은 후 체온이 안정화되며 당일 회사에 출근, 기아연립생필관에 거주했던 직원으로 추가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 <https://bit.ly/2Eir1G8>

"코바이 잉글랜드"... 위기의 영국서 발 빠른 日 자동차 (머니S)

일본 자동차업체들이 영국에서 속속 발을 빼고 있음. 영국에서 운영 중인 중일 생산라인 일부를 이전하거나 아예 철수하는 업체도 나오고 있음. 신차 개발 계획을 포기하는 사례도 나타나는 중. <https://bit.ly/3litjMx>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